새바람 행복 경북!	**경상북도 보도자료**	2020. 2. 11(화) TEL. 054-880-4322

제 목	담당부서	비 고
① **경북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차단 총력 대응!** 장기화 극복을 위한 도 종합대책 추진상황 브리핑 물샐 틈 없는 방역체계 구축 및 지역경제 악영향 최소화 관광업체 피해 최소화 및 중국 유학생 관리 등 분야별 대책 추진	정책기획관	
② **경북도, 청렴도 1등급 달성 위해 민·관이 함께 머리 맞대..** 도내 5개 민간단체 참여, 제1차 청렴도 1등급 달성 대책협의회 개최 10대 중점과제 선정, 고강도 청렴도 향상 대책 추진	감사관	
③ **경북도, 안전 농산물 생산 전국 최고!**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22,258호 달성, 전국 1위 차지 농산물 품질과 안전성 확보로 경북 농산물 경쟁력 강화 기대	농식품유통과	
④ **경북도, 대일본 통상·투자유치 관광객 유치 위해 발품** 일본 기업 대상 투자유치설명회, 현지경제인 간담회 등 협력방안 논의 시즈오카현과 관광교류 활성화 및 지진방재 대책모색, 재일도민회 신년회 참석	외교통상과	
⑤ **경북도,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 확보한다!** 2019년 심정지 환자 9.7% 자발순환 회복.. 119신고부터 현장도착까지 신속 대응	소방본부	
⑥ **경북도, 멍게양식협회와 힘 모은 양식 멍게 첫 출하 앞둬!** `18년, 첫 종자생산 이후 가이식과 본양성에 성공한 양식 멍게	수산자원연구원	
★ **동 정** - 이철우 도지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교육·교통 부문 대책상황' 현장점검	대변인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2. 11(화)】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작성자	과 장	정 성 현	
			팀 장	안성렬	주무관 이원영
		연 락 처	054-880-2116		

경북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차단 총력 대응!

- 장기화 극복을 위한 도 종합대책 추진상황 브리핑 -
- 물샐 틈 없는 방역체계 구축 및 지역경제 악영향 최소화 -
- 관광업체 피해 최소화 및 중국 유학생 관리 등 분야별 대책 추진 -

경상북도 강성조 행정부지사는 11일 도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장기화 관련 도 종합대책 추진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가졌다.

이번 브리핑은 지난해 연말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장기화로 민생, 경제, 관광 등 지역 전반에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그간 경북도에서 추진해온 대응 상황과 향후 분야별 추진대책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마련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지난해 12월 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하여 2월 11일 현재 총 28개국에서 4만 3천여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는 등 그 여파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월 11일 현재 28명의 환자가 발생하였고 정부 차원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여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경북도에서는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선제적이고 강력한 방역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강성조 행정부지사는 "지금까지 지나칠 정도로 엄격하게 방역체계를 구축 운영해왔으며 도내 확진환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고 강조했다. 현재 도내 관리 인원은 총 58명이며 이중 자가격리자는 38명, 능동감시자 20명이다.
아직 환자 발생은 없지만 도에서는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비상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시 가장 중요한 음압병실 7실과

격리시설 의료기관 12개소, 3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의사환자 선별을 위한 선별진료소(46개소)도 각 지역마다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다중 이용시설과 주요 관광지 등에 예비비 등 56억원을 투입하여 열감지 화상카메라 총 136대와, 이동형 X-ray 등을 비치해 사전 차단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날 브리핑에서는 신종 CV 장기화에 따른 지역 경제 지원대책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

강 부지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아 사스, 메르스 때보다 수·출입에 큰 타격이 예상되고, 경북 지역도 중국과의 수출입 비중이 높아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라고 설명하고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경북도에서는 23개 시·군과 연계하여 '경제 핫라인' 을 개설하고, 도 산하기관과 국가기관 등이 참여하는 '행복경제정책회의' 를 출범하는 등 선제적인 비상경제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특히,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5개반(경제대응총괄반, 기업대책반, 소상공대책반, 통상대책반, 교통방역대책반) 10개팀의 경제T/F단을 구성하여 기업피해 접수 일원화, 마스크 등 매점매석 불공정거래 방지 신고센터 운영, 소상공인·전통시장 피해 접수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도내에서는 현대·기아차 생산라인 중단과 중국 현지공장 조업 중단 및 단축 등으로 지역 기업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도에서는 중소기업긴급경영안정자금을 3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확대하고, 중앙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추가로 3,000억원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수출·입 피해 기업에 대해선 수출지원 마케팅, 도-시군 수출지원기관 협력 사업, 대체시장 개척 지원 등을 지원하고, 특히 Kotra, 무역

보험공사, 대구본부세관 등과 협조하여 불가항력증명서 발급과 통관시 즉시 수리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매출액이 감소된 지역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율 상향(평시 5% 정도 → 특별 10%) 및 조기 발행과 특별 정책자금을 신규(25억원) 지원하는 한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과 기업체에는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도 지원하고 있다.

지역 관광업계에 대한 피해 지원도 다각적으로 진행된다.

강 부지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장기화로 인해 관광수요가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다만 단체 관광객은 줄고 있지만 개별 관광객은 꾸준하게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강 부지사는 특히, 그간 의욕적으로 준비해 온 '대구경북 관광의 해' 추진이 다소 지연되어 아쉬움이 크다고 설명하고, 아쉽지만 도민의 건강이 우선인 만큼 방역과 피해 지원에 인력과 자금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시기를 대구경북관광의 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내실을 다지는 시기로 활용해 사태가 진정되는 즉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칠 준비를 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이를 위해 경북상품 판매 국내외 전담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도, 시군, 교육청, 산하기관 직원 휴가캠페인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버스타고 대구경북, 축제 품앗이, 출향인 고향방문 프로그램 등도 사태가 진정되는 즉시 전면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도내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이뤄지고 있다.

도내 중국인 유학생은 24개 대학 2,014명(’ 20. 2. 10 현재)으로 이중 국내 체류 인원은 273명(기숙사 26명, 자가 247명)이다. 현재 이들에 대해서는 시군과 대학, 보건소를 연결하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입국 예정 인원 1,741명에 대해서는 입국시부터 단계별 특별관리 대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강성조 행정부지사는 “경북도는 현재 도민의 안전 확보와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를 위해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지원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며, “도민, 지역 기업들과 합심하여 이번 신종 CV 사태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고 의지를 피력했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2. 11(화)】	담당부서	감사관		
		작 성 자	감사관	이 창 재	
			팀 장	김승동	주무관	양경일
		연 락 처	054-880-4352		

경북도,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 민·관이 함께 머리 맞대.

- 도내 5개 민간단체 참여, 제1차 청렴도 1등급 달성 대책협의회 개최 -
- 10대 중점과제 선정, 고강도 청렴도 향상 대책 추진 -

경상북도가 ‘청렴도 1등급 경상북도’ 달성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도는 11일 도청 회의실에서 민간 5개 단체 관계자 및 도 실국본부장 등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청렴도 1등급 달성 대책협의회’(이하 대책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2019년 청렴도 측정결과와 2020년도 청렴도 향상대책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실국본부별 청렴도 향상대책 보고,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축사회 등 민간단체의 의견수렴 및 건의사항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경북도는 2019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내부청렴도는 지난해에 비해 2등급 상승했으나, 공사·용역·보조금 등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외부청렴도가 1등급 하락했다. 이에 획기적으로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대책협의회를 구성했다. 2개월에 한 번씩 행정부지사가 주재하는 회의를 개최한다. 실국본부장 책임하에 청렴도 대책 논의 및 추진상황 점검 등을 통해 청렴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북도는 청렴도 향상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해 고강도 청렴 시책을 추진한다. 먼저,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등을 고지하고 불편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부서장 클린-콜(Clean Call)을 시행한다. 매월 1회 실국별 자체청렴실천사항 교육, 자체 청렴도 향상 대책수립 등 전 부서가 참여하는 ‘청렴책임제’를 운영한다.

또한, ‘실국별 청렴순회 간담회’를 통해 청렴도 측정분석결과를 전파·공유하여 전 직원이 능동적으로 청렴실천운동에 참여하도록 한다. ‘청렴 해피콜(HAPPY CALL)에 대한 피드백을 강화’해 청렴도 취약분야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으로 도민 만족도를 제고해 나간다.

이외에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처음으로 공사·용역관리감독, 보조사업, 민원 등 ‘4대 분야 실태점검’을 통해 자체감사 및 점검기능을 강화하고 ‘불법·부당한 관행 근절을 위한 청렴실천운동’을 지속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청렴캠페인, 청렴 개그콘서트, 찾아가는 청렴교육관 운영 등 변화의 주역을 양성하는 ‘내실있는 청렴교육’을 추진한다. 공직자 의식개혁 및 청렴마인드를 제고하여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전 직원이 청렴을 생활화해 도정의 신뢰성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장을 찾은 이철우 도지사는 “취임 이후 ‘변해야 산다’는 큰 흐름에 전 직원들이 적극 동참해준 결과 내부청렴도가 8년만에 2등급 상승했다”며 “앞으로도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문화가 확고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하여 청렴 1등급 달성으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자”고 말했다.

회의를 주재한 강성조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청렴은 공직사회 내부의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고 반드시 수요자의 입장에 있는 민간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며 “취약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체계적인 청렴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렴도 1등급 달성 대책협의회」 제1차 회의 개최

❖ 청렴도 향상을 위해 민·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체계적인 청렴시책 수립·추진으로 **'청렴도 1등급 경상북도'** 달성

개 요

○ 일 시 : 2020. 2. 11.(화) 10:30 ~ 11:40

○ 장 소 : **도청 화랑실**(2층, 254호)

○ 참석대상 : 청렴도 향상 대책협의회 위원 24명

※ 우리 道(19) : 실·국장, 소방본부장, 환동해지역본부장, 농업기술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 북부·남부건설사업소장

※ 민간단체(5) :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산림조합중앙회

○ 내 용

- **청렴도 측정결과** 및 **향후 기본대책에 대한 공유**
- 실국 분야별 **자체 외부청렴도 향상대책 발표 및 토론**
- **민간분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및 시책 반영

시간계획

시 간		행 사 내 용	비 고
10:30~10:33	3′	▲ **인사말씀**	**도지사**
10:33~10:50	17′	▲ **회의주재(행정부지사)** ▲ 청렴도 측정결과 및 향후 기본대책 설명	청렴총괄팀장
10:50~11:20	30′	▲ 실국별 향상대책 설명	실국본부장 등
11:20~11:37	17′	▲ 청렴도 향상대책 협의 ▲ 민간단체 의견 및 건의사항 수렴	
11:37~11:40	3′	▲ **마무리 말씀**	**감사관**
11:40	-	▲ 폐 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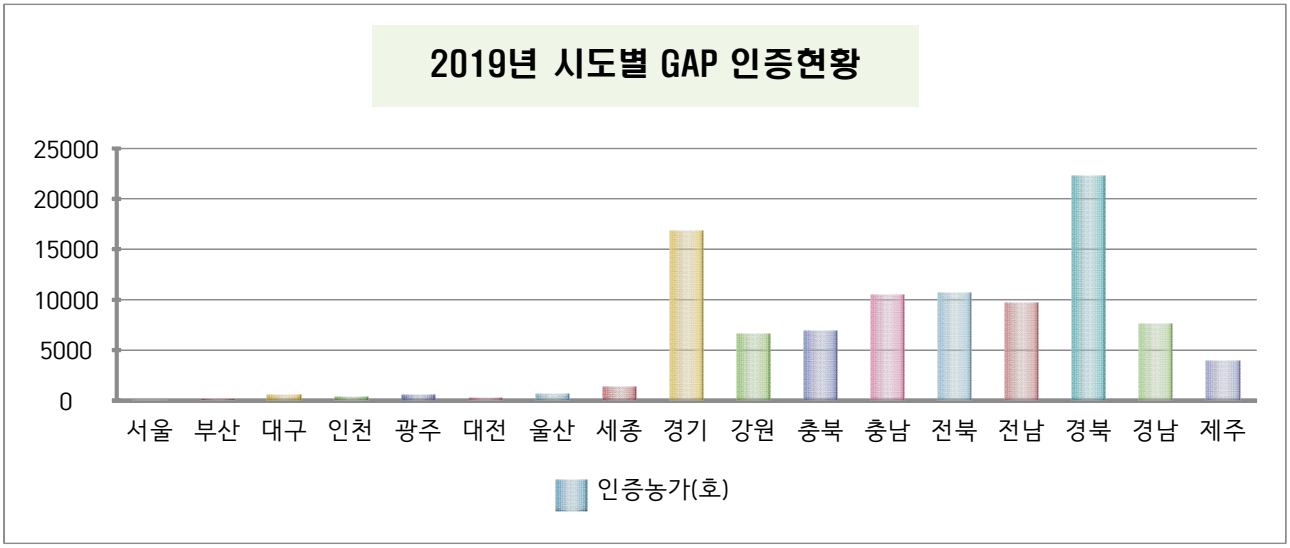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2. 11(화)】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국 농식품유통과		
		작성자	과 장	설 동 수	
			팀 장	김철수	주무관 김준철
		연 락 처	054-880-3347		

경북도, 안전 농산물 생산 전국 최고!

-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22,258호 달성, 전국 1위 차지 -
- 농산물 품질과 안전성 확보로 경북 농산물 경쟁력 강화 기대 -

경상북도는 2019년 국내 GAP 인증현황 조사 결과 도내 인증농가수가 22,258호(전국 99,050호 대비 22.5%)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20,632호 대비 1,626호(7.9%)가 증가한 것이며, 인증면적은 21,804ha(전국 112,106ha 대비 19.5%)를 차지했다.



<발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20년 1월>

▶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 농산물우수관리) :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위해요소 관리제도

농산물우수관리(GAP)란 유해미생물로 인한 식품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현실에서 농산물의 생산·수확과, 수확 후 관리과정에서 안전·위생 관리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유해미생물 등의 각종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최종 농산물에는 위해

요소가 없거나 국가가 정한 기준치 이하로 관리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사전 예방적인 안전관리 제도이다.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적절하게 관리한 생산농가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증한다.

경상북도는 전국 최대 과수 생산지로 사과 7,475호(7,946ha), 포도 2,860호(2,106ha), 복숭아 2,044호(1,556ha) 등 과수류 인증이 13,386호(12,340ha)로 GAP인증 관리가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과수 품목의 인증 비율이 절반이 넘는 60.1%를 차지하고 있다. 쌀 등 식량작물은 3,089호 5,140ha로 13.9%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경북도 과수농가의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도는 지난해 GAP 인증농가 확대를 위해 도내 22개 시군에 GAP 토양·용수 안전성분석비 및 농산물에 잔류하는 농약·중금속 검사비 지원사업에 20억원을 지원했다. 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업해 GAP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GAP 인증 확대에 총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GAP농산물이 친환경농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비자 인지도가 낮고 일반농산물과의 가격 차이가 없어 인증농가 확대에 어려움이 있으나, 농업 현장에서 안전 농산물 생산은 농업인의 의무다” 며 “GAP 인증제도 정착을 유도해 경북 우수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

새바람 행복 경북!

2019년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현황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 단계에서 잔류할 수 있는 농약 · 중금속 등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통해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

GAP 인증농가 현황

○ 인증농가 : 전국 최대인 **22,258호**(전국 99,050호 대비 22.5%)

* GAP 인증율은 전국평균 9.7%에 비해 우리도는 12.6%로 4위 수준
(농가수가 적은 세종, 경기, 제주 順)

○ 인증면적 : 21,804ha(전국 112,106ha 대비 19.5%)

GAP 품목별 인증 현황

(단위 : 호, ha)

구 분	합 계	사과	쌀	포도	복숭아	참외	오미자	자두	딸기	감	기타
농가수	**22,258**	7,475	3,052	2,860	2,044	1,175	658	608	430	399	3,557
면 적	**21,804**	7,946	5,043	2,106	1,556	1,139	418	481	205	251	2,659

정부합동평가 "달성"

○ 지 표 명 : GAP 인증농가 확대(국 지표 15개, 농식품유통과 지표 2개)

○ 평가내용 : GAP 인증농가 확대에 따른 인증율 증가 평가

○ 평가결과 : 목표 21,519호 대비 103.4%인 22,258호로 "달성"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2. 11(화)】	담당부서	일자리경제실 외교통상과		
		작성자	과 장	박 노 선	
			팀 장	권세안	주무관 노병희
		연 락 처	054-880-2722		

경북도, 대일본 통상·투자유치 관광객 유치 위해 발품

- 일본 기업 대상 투자유치설명회, 현지경제인 간담회 등 협력방안 논의 -
- 시즈오카현과 관광교류 활성화 및 지진방재 대책모색, 지바도민회 신년회 참석 -

전우헌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9일부터 11일까지 일본과의 경제협력 및 관광교류 확대를 위해 일본 주요지역을 방문했다.

이번 출장은 일본 도민회 및 주요 경제인과의 면담을 통한 경제협력 확대, 시즈오카현과의 관광 및 지진방재 기술교류, 일본기업 대상 투자유치설명회 개최와 지바도민회 신년회 참석 등으로 이뤄져 방문단은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다.

방문 첫날 한국 화장품 판매 업체인 한인 기업을 방문해 도내 화장품의 일본수출 판로확대 방안을 협의했다. 이어 도쿄도민회 회장단과의 간담회를 가지고 경북도의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경제부지사는 대일본과의 통상확대 및 관광객유치를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둘째날에는 시즈오카 현청을 방문하여 가와카츠 지사를 면담한 자리에서 양지역간 관광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특히 시즈오카현 고등학생 수학여행단의 경북유치를 비롯해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수학여행 학교관계자를 대상으로 팸투어도 요청했다. 또 양지역 지진방재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의 지진방재 정책 프리핑을 듣는 등 향후 양지역간 지진방재를 위한 인적, 기술교류를 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현재 시즈오카현 138개 고등학교 중 54개 학교가 해외로 수학여행을 가고 있는 등 2018년에 이어 2년 연속 해외수학여행 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한국으로의 수학여행은 거의 없어 적극적인 일본 수학여행단 유치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날 오후에는 도레이, 아사히글라스, 미쓰비시상사, 닛탄밸브, 이비덴, 루미너스 재팬, NTN 등 일본 소재 글로벌 기업을 초청한 가운데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일본 기업인들을 초청하여 경북도 투자환경 소개, 일본기업의 투자유치 성공사례 발표와 투자 관련 애로사항 청취 등의 순으로 진행 됐다.

도쿄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닛탄밸브社의 경북도 투자유치 성공사례 발표를 통해 현지 일본 기업인들의 경북투자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이어 일본여행자협회(JATA)를 방문해 키쿠마 준고 수석부회장을 면담했다.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맞아 경북의 관광 자산과 인센티브 지원내용 등을 설명하고 일본 관광객 유치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또 JATA회원들에게 경북 팸투어도 요청했다.

저녁에는 일본 현지 코트라, 월드옥타 동경지회, 상공인 등 현지 경제인 2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감담회를 개최했다. 도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협력 확대를 비롯하여 최근 수출규제 등으로 꼬인 양국의 실타래를 푸는데 많은 역할을 해 주기를 당부했다.

방문 마지막날 지바에서 개최된 ‘재일본 7개 도민회연합회장단 초청 간담회’ 자리에서 전우헌 경제부지사는 도정발전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열린 지바도민회 신년회에 참석해 곽복남 지바도민회장, 김풍성 前 지바도민회장에게 도정 발전에 쏟은 열정과 성과 등 감사의 뜻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하고 노고를 치하했다. 또 ‘2020대구경북관광의해’를 맞이해 천병승 회장 등 7개 도민회장을 ‘대구경북관광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일본인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경상북도의 해외도민회는 일본 7개를 비롯하여 미국 호주, 독일, 영국 등 12개 도민회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일본도민회는 체계적인 도정기여 확산과 효율적인 도민회 운영을 위해 ‘재일본 경상북도 도민연합회’를 구성하여 고향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전우헌 경제부지사는 “이철우 도지사 취임이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수출 380억불 달성과 대구경북신공항 통합추진, 일자리 3만 2천개 창출과 4조 8천억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했다. 이외에도 굵직굵직한 국가 프로젝트를 유치하는 등 과거 경북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잘사는 국가, 힘이 있는 국가를 건설하는데 도민회의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일본 출장계획

Ⅰ 전체 개요

출장 개요

○ 일　　시 : 2020. 2. 9(일) ~ 2. 11(화)

○ 장　　소 : 일본 도쿄, 시즈오카, 지바

○ 출 장 자 : 경제부지사, 국제관계대사, 투자유치실장 등

※ 국제관계대사 일정 : 2. 6(목) ~ 2.12(수) /도쿄, 가나가와, 시즈오카 등

주요 내용

○ 2. 9(일) 11:10~ 출국(대구 → 나리타), 도쿄도민회장단 간담회

○ 2.10(월) 09:15~ 시즈오카현 방문

13:00~ 일본기업 비즈니스 확대간담회

18:30~ 경제관계자 교류회

○ 2.11(화) 11:00~ 도민회연합회 간담회 및 지바도민회 신년회 참석

18:30~ 귀국(나리타 → 대구)

전체 일정

일자	시 간	내 용	비 고
2. 9(일)	11:10~13:10	○ 출국(대구 ⇒ 나리타)	티웨이(TW201)
	16:00~17:00	○ 한류발상지 시찰(신오쿠보 거리)	
	17:30~19:40	○ 도쿄도민회 회장단 간담회	도쿄
2.10(월)	09:15~11:00	○ 시즈오카현 방문(수학여행단 유치 등 협의)	시즈오카
	13:00~14:30	○ 일본기업 대상 비즈니스 확대간담회	도쿄
	18:30~20:30	○ 경제관계자 교류회	
2.11(화)	11:00~14:00	○ 도민회연합회 간담회 및 지바도민회 신년회 참석	지바
	18:30~21:00	○ 귀국(나리타 ⇒ 대구)	티웨이(TW　)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2. 11(화)】	담당부서	소방본부 구조구급과		
		작성자	과 장	백 승 욱	
			팀 장	김정희	주무관 신영옥
		연 락 처	054-880-6340		

경북도,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 확보한다!

- 2019년 심정지 환자 9.7% 자발순환 회복... 119신고부터 현장도착까지 신속 대응 -

경북도가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 4분' 확보에 나섰다.

심정지 발생 후 골든타임 4분 이내에 뇌에 산소 공급이 되지 않으면 뇌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한다. 이때 목격자(신고자)가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이에 경북도는 119신고 접수단계부터 신속한 심정지 인지 및 1분 이내 구급대의 출동지령과 구급대의 현장도착 전까지 목격자(신고자)에 의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을 높이는데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지난해 경북도내에서 119구급차로 이송된 심정지 환자를 분석한 결과 심정지 환자 1,699건 중 165명(9.7%)이 심장의 자발순환이 회복됐다. 이는 2018년 1,616건 중 109명(6.7%)에 비해 3%(56명)로 크게 증가한 것이다.

경북소방본부는 지금까지의 단순 심폐소생술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심정지 환자 119 신고 시 구급상황관리센터 상담요원이 스마트폰 영상을 통해 환자 상태 확인 및 심폐소생술 방법 등을 현장의 신고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해 구급대 현장도착 시까지 신속하고 정확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응급의료전화상담원 지원 심폐소생술(DA-CPR)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입할 계획이다.

미국심장협회(AHA) 지침 「2019 포커스 업데이트 하이라이트」에 의하면

응급의료전화상담원 지원 심폐소생술(DA-CPR) 시행 시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 시행률이 5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응급의료전화 상담원 지원 심폐소생술(DA-CPR)의 전반적 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급의료전화상담원이 심정지 환자 목격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지시하는 권한을 가지도록 권장하고 있다.

남화영 경북소방본부장은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은 4분이지만 구급대가 4분 안에 현장 도착하기엔 원거리 및 교통상황 등 여러 장애요인이 있다”며 “119신고 시 심정지 환자의 신속한 인지 및 구급차 출동과 신고자에 의한 심폐소생술 시행 등 발 빠른 대응을 통해 골든타임 확보에 총력을 다해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2. 11(화)】	담당부서	수산자원연구원		
		작성자	원 장	박 성 환	
			과 장	박무억	주무관 박선희
		연락처	054-730-1198		

경북도, 멍게양식협회와 힘 모은 양식 멍게 첫 출하 앞둬!

- `18년, 첫 종자생산 이후 가이식과 본양성에 성공한 양식 멍게 -

경상북도는 2018년부터 영덕군 멍게양식협회와 공동으로 추진한 '경북 동해안 멍게 종자 자체생산 및 시험양식 사업' 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올여름 첫 출하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하하는 양식 멍게는 2018년 1월, 영덕 멍게양식협회에서 성숙한 어미 멍게를 제공하고, 연구원의 종자생산 시설 및 기술을 활용해 생산한 채묘기(유생 부착기질) 2,000틀(100m/틀)의 멍게 종자를 영덕 병곡 및 축산 연안에서 2년 이상 양식 중인 멍게다.

우리나라 멍게 양식은 경남 통영에서 전국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양식용 종자 또한 독점적으로 생산·보급하고 있다. 관내 멍게 양식업계는 종자 구입 비용이 경영상 매우 큰 부담이다. 실제 영덕 멍게양식협회의 경우 매년 20억원 이상의 종자를 경남 통영에서 구입하고 있다. 최근에는 해양환경 변화, 양식어장 노후화 및 질병 발생으로 양식 멍게의 대량 폐사가 빈번히 발생해 종자 구입량 및 비용이 증가하는 실정이다.

연구원은 멍게양식협회의 요청으로 경남 통영에서 거의 전량을 구입해 오던 양식용 종자를 대체하고, 관내에서 자체 수급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민·관 공동으로 종자 자체생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에는 채묘기 2,000틀, 2019년에 3,000틀의 멍게 종자를 생산해 현재까지 시험 양식 중이다.

올해는 지난 1월부터 성숙한 양식산 어미 멍게 2톤과 자연산 어미 멍게

400kg로 5,000틀의 멍게 종자를 생산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를 오는 2월 중순에 영덕군 연안 어장으로 이송해 가이식하는 등 자체 종자생산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또 시험 양식 중인 멍게를 출하한 이후에도 경북 동해안 자체 종자 및 남해안 종자를 활용한 양식 멍게의 최종 생산량 및 경제성 등을 비교 분석할 계획이다.

※ 종자구입비 대체효과 : '18~'20년 까지 종자 생산량 10,000틀 × 5만원 = 5억원

김두한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경북 도내 어민들의 요구에 맞는 실용연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멍게 종자생산과 더불어 전복, 해삼, 동해안 가자미류, 독도 새우류 등 우리 어민들이 선호하고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는 고부가가치 품종의 종자 생산·방류 및 신품종 연구 개발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 정

□ **이철우 도지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교육교통 부문 대책상황’ 현장점검**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 12일(수) 지역대학과 대중교통 방역현장을 방문해 지역대학유학생 관리대책과 교통부문 대책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한다.